
- 2016년 해외 선진 항만시설 및 도시재생 사례 -

비교시찰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Jung-Gu Council

목 차

| | | | |
|------|-------------------------|-------|----|
| I. | 방문개요 | | 1 |
| II. | 방문일정 | | 2 |
| III. | 방문지 개황 | | 3 |
| IV. | 기관 공식 방문 및 시찰 내용 | | 5 |
| | ○ 빌바오 향만청 방문 | | 5 |
| | ○ 바르셀로나 향만청 방문 | | 10 |
| V. | 도시재생사업 | | 14 |
| VI. | 기타지역 방문 | | 17 |
| VII. | 방문후기 | | 20 |
| | ○ 임관만 의장 | | 20 |
| | ○ 김규찬 의원 | | 20 |
| | ○ 이정재 의원 | | 22 |
| | ○ 한성수 의원 | | 23 |
| | [별첨1] 관련 사진 | | 25 |
| | [별첨2] 바르셀로나 향만청 현지 보도자료 | | 26 |

- 2016년 해외 선진 항만시설 및 도시재생 사례 - 비교시찰 결과 보고

- 『현재 당면해 있는 인천 내항 1부두 재개발 및 8부두 전면 개방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진 항만시설인 스페인 항만시설을 시찰하였음
- 특히,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항만 재개발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항만시설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페인 빌바오 및 바르셀로나 항만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공부함으로써 향후 내항 8부두 전면개방에 따른 활용 및 개발 추진에 소중한 의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6. 4. 21(목) ~ 4. 28(목) 【6박 8일】
- 방문국가 : 스페인(빌바오, 마드리드, 톨레도, 바르셀로나)
- 방문인원 : 8명

| 연 번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
| 1 | 중구의회 | 의 장 | 임 관 만 |
| 2 | | 의 원 | 김 규 찬 |
| 3 | | 의 원 | 이 정 재 |
| 4 | | 의 원 | 한 성 수 |
| 5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 김 경 후 |
| 6 | | 지방행정주사보 | 박 성 철 |
| 7 | | 지방행정서기 | 이 지 영 |
| 8 | | 지방행정서기 | 김 성 일 |

○ 방문목적

- 선진 항만시설과 항만 기술 및 개발 성공 사례가 있는 국가를 우리 구의 내항과 비교·조사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항만 재개발 사업의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고자 함.
- 선진 항만재개발 사례 및 관광시설 벤치마킹
- 인천 내항 개방 및 재개발 방향에 있어 내항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 항만재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II

방문 일정

| 일 자 | 연수지역 | 일 정 |
|----------------|--------------------|---|
| 제1일 4.21(목) | 인 천 | • 인천 공항 → 프랑스(AF 267) → 빌바오(AF 1576) |
| 제2일 4.22(금) | 스페인 (빌바오) | • 기관 방문 - 빌바오 항만청 공식방문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 • 담당 분야별 시설 견학 (항만주변 문화위락시설 답사) |
| 제3일 4.23(토) | 스페인 (빌바오, 마드리드) | • Nervion River Water front 견학 • 구겐하임 미술관 견학 |
| 제4일 4.24(일) | 스페인 (마드리드, 톨레도) | •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스페인의 수도 등 견학 - 프라도미술관, 마드리드왕궁, 푸에르타 델 솔광장, 톨레도 대성당 견학 등 |
| 제5일 4.25(월) | 스페인 (바르셀로나) | • 기관 방문 -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공식방문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 • 담당 분야별 시설 견학 (항만주변 문화위락시설 답사) |
| 제6일 4.26(화) | 스페인 (바르셀로나) | • 무역항, 어항, 크루즈항으로 구별되어있는 바르셀로나항 시찰을 통해 조성 형태 및 관련시설 답사 분석 • 바르셀로나 Container Terminal 견학 |
| 제7일 4.27(수) | 스페인 (바르셀로나) | • 포트벨 항만에서 카탈루냐 광장으로 이어지는 람블라스 특화거리 조성 구간 답사를 통하여 항만주변 문화위락시설 견학 |
| 제8일 4.28(목) | 인 천 | • 빌바오 공항 → 프랑스(AF 1649) → 인천 공항(AF 5092) |

Ⅲ

방문지 개황

1. 스페인 빌바오

○ 위 치 : 서경 3°41' , 북위 40°24'



○ 면 적 : 40.65 km²

○ 인 구 : 346,278명 (2015년 기준)

○ 특 징

- 영국, 프랑스와의 교역 항구로 산업화 시대 철강, 제철, 조선 산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였으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됨.
- 이후 문화정책에 집중,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며 몰락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하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며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를 만들어 냄.
- 이후 네르비온 강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 프로젝트 등의 성공으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의 성공적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자매(우호)도시 : 중국 칭다오를 비롯해 7개의 국제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음.

2. 스페인 마드리드

- 위 치 : 서경 3°41' , 북위 40°24'
- 면 적 : 605.77 km²
- 인 구 : 3,265,038명 (2015년 기준)
- 특 징

- 에스파냐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산업도시로서의 중요성도 크며, 도로·철도 및 항공의 요충지이기도 함. 인구상으로는 유럽 제4의 대도시임.
- 마드리드(Madrid)는 스페인의 수도로, 스페인의 중심에 위치함. 마드리드가 쏟아내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주변 도시들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드리드는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 중심으로 여겨짐. 또한 스페인 회사의 절대 다수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페인의 수도로서 정부 청사가 있으며 스페인 왕궁이 있을 뿐 아니라 스페인 정계의 중심이기도 함.
- 한편 마드리드는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고 동시에 역사적인 거리와 장소를 간직하고 있음. 마드리드의 거대한 왕궁이 그 중의 하나이며 스페인 국립 극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작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프라도 박물관, 스페인의 왕비인 소피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가 이에 포함됨.

3. 스페인 바르셀로나

- 위 치 : 동경 2°11' 북위 41°23'
- 면 적 : 101.4 km²
- 인 구 : 1,604,555명 (2015년 조사, 스페인 도시 중 2위)
- ※ 인구밀도 : 약 15,824명/km²
- 특 징

- 남동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완만한 사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베소스 강과 요브레가트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로 산으로 둘러싸여 기후가 온화하고 쾌적함.
- 제조업·조선업·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중장비기계·화학제품·섬유공업은 카탈루냐 지방 산업 활동의 중추로 스페인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100개가 넘는 정기선이 바르셀로나와 세계의 주요항구를 연결하고 있음.

○ 자매(우호)도시 : 우리나라의 부산을 비롯해 27개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IV

기관 공식 방문 및 시찰 내용

1. 빌바오 항만청 방문

○ 방문일시 : 2016. 4. 22(금) 10:00~12:00

○ 방문기관 : 빌바오 항만청 (Port of Bilbao Authority)

○ 참 석 : 10명

- 빌바오 항만청 운영본부장 등

- 임관만 의장, 김규찬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직원(3)

○ 주요내용

- 빌바오 항만청의 역할 프리젠테이션 청취

- 항만 개발 및 관리 현황 청취

- 네르비온 강 및 구겐하임 미술관 개발 과정 설명

- 질의응답

○ 관련사진



<항만청 현황 프리젠테이션 청취>



<기념품 교환 및 기념사진 촬영>

◆ 방 문 내 용 ◆

【빌바오 항만청 운영 본부장】

- ◆ 인천 중구의회 임관만 일행의 방문을 환영하며 빌바오 항만청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방문해 주신 이곳 빌바오는 하나의 항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오늘 방문이 방문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잘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먼저 여러분께서 사전에 우리 빌바오 항을 방문하시기 전에 보내 주셨던 기관방문 목적을 토대로 보았기에 빌바오 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 빌바오항은 유럽에서 복합 통로 개발의 선구자로 대서양의 중심으로서 세계 900여 곳의 항구로 연결되고 있으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열려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빌바오항 위치>



<현재 빌바오항 위치>

- ◆ 먼저, 초기 빌바오항은 지금처럼 바다에 위치하지 않았음. 과거 1970년까지만 해도 첫 번째 그림처럼 네르비온강을 따라 내륙안쪽에 위치하였었고 빌바오는 철강, 조선 분야에 으뜸인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공업도시로, 유럽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중공업이 쇠퇴하게 되어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됨. 이에 빌바오 시는 항만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중공업으로 오염된 환경 정화에 대한 탈산업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기존 빌바오항을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전하였으며, 구 빌바오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을 하게 됨.

【중구의회 방문단】

- ◆ 세계적으로 항구는 예전의 물류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친수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 인천항 또한 8개의 부두 중 1, 8부두를 기존의 물류 중심에서 시민중심의 친수공간으로

개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구 빌바오항이 이전하고 남겨진 빌바오강(네르비온강)이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어떠한 개발 과정을 거쳤는지 개발 방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음.

【빌바오 항만청 운영 본부장】

- ◆ 빌바오시는 산업화의 쇠퇴로 탈산업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과거 공업지역을 개발하고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 바스크 정부, 비스카이아 지방의회가 참여한 빌바오리아 2000이라는 공기업을 조성함. 빌바오강 재개발을 위한 재정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바탕으로 조성되었음. 그러한 토지를 개발하여 지분 또는 사용권을 민간에게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중구의회 방문단】

- ◆ 빌바오하면 구겐하임 미술관과 그 수변공간을 빼 놓을 수 없는데,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과 개발 계획이 당시 빌바오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또 확정 후 사업비 등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했는지?

【빌바오 항만청 운영 본부장】

-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빌바오시는 산업화의 쇠퇴로 탈산업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게 됨. 그 과정에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개발계획이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그리하여 빌바오시는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미술관, 극장, 음악홀, 도서관 등을 확장 하였으며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됨.
- ◆ 또한, 빌바오시 정부(바스크 정부)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데 시 재정 1억 3,222만 유로를 투입함. 유치 당시 빌바오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이후 매년 약 90만 ~ 1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중구의회 방문단】

- ◆ 인천항 또한 8개의 부두 중 1, 8부두를 기존의 물류 중심에서 시민중심의 친수공간으로 개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친수항만과 물류항만이 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빌바오 항만청 운영 본부장】

- ◆ 1980 년 이후 새로 건설된 빌바오 항구는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하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됨. 왼쪽이 수출입 물동량을 관리하는 산업항으로 조성되고 오른쪽이 크루즈 항과 같이 친수항으로 조성됨. 이렇듯 인천내항도 물류항만과 친수항만을 분류하여 운영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상업시설과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구의회 방문단】

- ◆ 물류항 운영에 따라 소음·분진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는지?

【빌바오 항만청 운영본부장】

- ◆ 새로운 빌바오 항구 건설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 초기부터, 물류항은 주민생활공간에서 떨어진 곳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분진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은 거의 없었음.

【중구의회 방문단】

- ◆ 인천 중구 내항의 항만 지역의 경우, 항만부지가 해수청 소유이며, 민간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을 허가하고 있음. 빌바오 항만지역 관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빌바오 항만청 운영본부장】

- ◆ 빌바오 시가 항만지역에 대한 운영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민간 기업에게 50년간 대여를 하고, 기간경과 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항만지역을 관리하고 있음.

【중구의회 방문단】

- ◆ 긴 시간동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내항 재개발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

【빌바오 항만청 운영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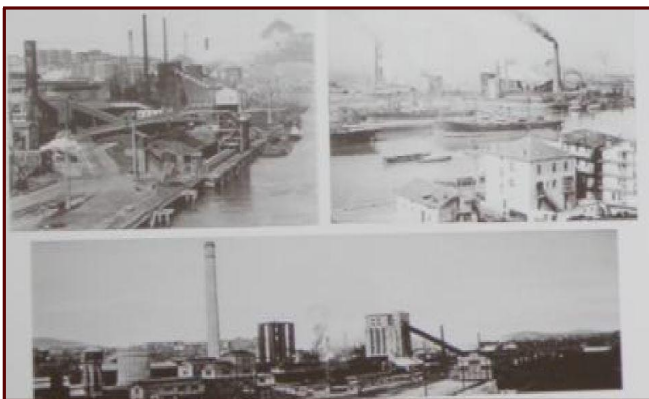
- ◆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임. 인천 중구 내항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빌바오항 시찰]



<빌바오 항에 대해 설명을 듣는 중구의회 방문단>

[네르비온강 및 구겐하임 미술관 시찰]



<빌바오항의 옛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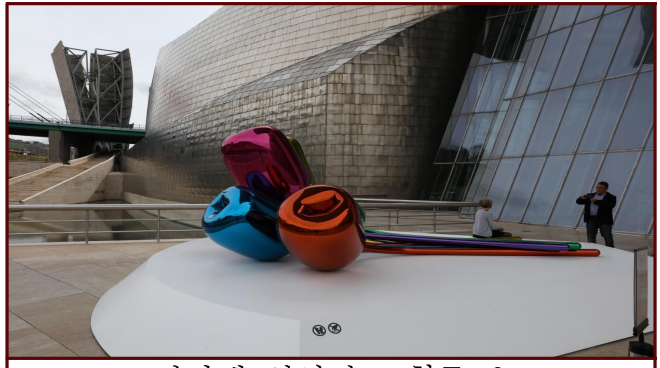


<빌바오강 주변 사진>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술관이 빌바오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하게 된 것은 디자인이 우수한 동의 공공건축물에서 비롯됨. 특히 미술관을 따라 흐르는 빌바오 강의 인도교와 수변 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인간의 노력과 자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며 철저한 계획에 의한 디자인이 도시 재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1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2

※ 미술관에 전시된 전시품보다 미술관 건물과 외부 조형물들이 더욱 유명한 구겐하임미술관



미술관 내부 1



미술관 내부 2

2. 바르셀로나 항만청 방문

○ 방문일시 : 2016. 4. 25(월) 10:00~12:00

○ 방문기관 : 바르셀로나 항만공사(Port de Barcelona)

○ 참 석 : 10명

- 바르셀로나 항만청 상업관리관(Liuis Paris), 직원

- 임관만 의장, 김규찬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직원(3)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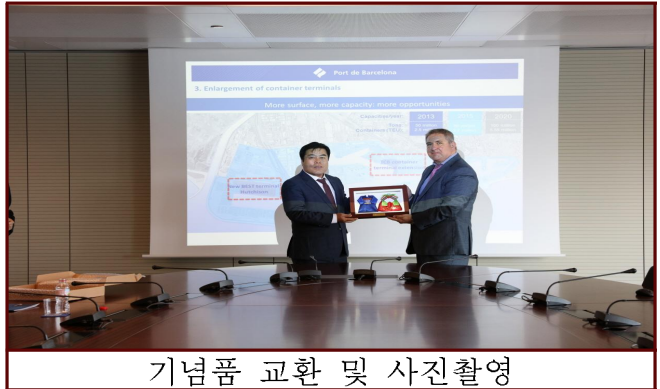
- 바르셀로나항만 현황 및 재개발 추진사항 프리젠테이션 청취

- 질의응답

○ 관련사진



바르셀로나항 프리젠테이션 청취



기념품 교환 및 사진촬영

◆ 방 문 내 용 ◆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상업담당관】

- ◆ 바르셀로나 항만청을 찾아주신 중구의회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함.
- ◆ 바르셀로나 항만청장 씨쓰 캄프라씨를 대신하여 방문단 여러분들께 바르셀로나 항만청의 운영 현황 등을 설명드릴 상업담당관 Lois paris임.
- ◆ 먼저 바르셀로나 항에 대한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신 후 질문을 통한 진행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음.
- ◆ 바르셀로나 항은 스페인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임. 스페인 무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탈루냐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지금 현재 해외 통상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해외 통상무역은 거의 바르셀로나 항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음.
- ◆ 현재 반경 5km 안에 공항, 항만, 도시가 같이 있어서, 지중해 수출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800만톤 정도 되는 유조선이 연간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물동량도 어마어마한 양이 이동하고 있음.

【중구의회 방문단】

- ◆ 인천항은 8개의 부두 중 1, 8부두를 기존의 물류 중심에서 시민중심의 친수공간으로 개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바르셀로나 항 또한 처음부터 현재와 같이 물류와 친수공간을 갖춘 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있음. 어떠한 개발 과정을 거쳤는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르셀로나 항 친수 공간>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상업담당관】

- ◆ 바르셀로나 항은 구항의 기능이 유희화 되면서 70년대부터 사회적인 문제 공간으로 인식, 86년부터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먼저 바르셀로나 시와 항만당국이 재개발하기로 합의하여 바르셀로나 시와 항만당국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재개발을 시행하게 됨. 중요한 점은 재개발의 주요 목적이 바르셀로나 항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임.

【중구의회 방문단】

- ◆ 우리 인천중구도 내항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자체, 관계기관, 시민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개발이 쉽지 않음. 바르셀로나 항만 재개발 사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재개발을 진행하였는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상업담당관】

- ◆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바르셀로나 시장, 항만공사 사장, 시민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월 1회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대화와 회의를 진행하였음.
- ◆ 재개발 추진을 위해 Port 2000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업무추진은 Port 2000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사장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사장이 겸임

【중구의회 방문단】

- ◆ 며칠 전 빌바오 항만청을 방문해 빌바오 항만재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 들었음. 그곳에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관련기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 방문단에게 정말 인상적이며 본 받을만 하였음.
- ◆ 그러면, 항만 재개발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였는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상업담당관】

- ◆ 재개발 사업비의 경우 기존의 항만 기능인 화물처리 기능에 대한 개발이 아니기에 스페인 정부의 지원은 불가능 하였음. 공공부문에서 1억 5천만 유로를 투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 4억 5천만 유로가 이루어짐. 은행대부로 재원을 조달하여 이후 운영수익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음.

【중구의회 방문단】

- ◆ 긴 시간동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내항 재개발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 끝으로 우리 인천 내항이 시민친화적인 항만으로 재개발하는데 있어 조언해 주고 싶은 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상업담당관】

-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개발을 통하여 달라지게 될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바르셀로나 항만 전경과 시설답사1



바르셀로나 항만 전경과 시설답사2



바르셀로나 항만 전경과 시설답사3



가변형 교량을 통해 요트 통행이 가능한 항구 모습



바르셀로나 항 광장



바르셀로나 항 Mare Magnum 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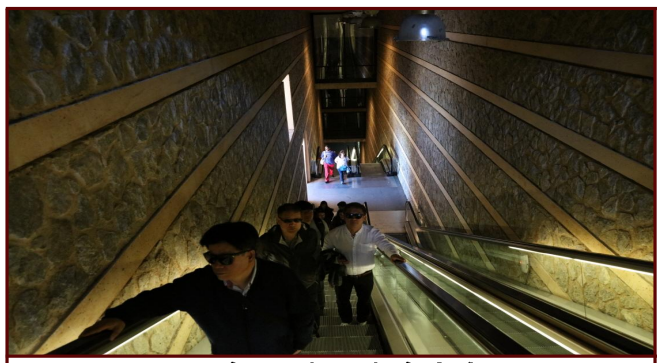
- ※ 바르셀로나 포트벨에는 가변형 교량이 요트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움직여 뱃길을 만들어 준다. 바르셀로나 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 ※ 바르셀로나 항 주위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비롯한 광장, 아름다운 건축물, 대형 크루즈, 요트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 또한 Mare Magnum 이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있어, 볼거리부터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항만시설과 친수공간이 잘 어우러져 있는 바르셀로나 항구부터 람블라스 거리까지 주변지역을 참고하여 향후 내항과 주변지역 개발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V

도시재생사업



바르셀로나 항 케이블 카



톨레도 에스컬레이터

- ※ 바르셀로나 항과 몬주익 산을 가로 지르는 케이블카로 바르셀로나 항구와 시내, 지중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요금은 10유로 (약 1,300원) 정도. 항만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 추진했다 환경훼손과 항만의 보안상의 이유로 중단된 월미도 케이블카의 입지와 유사한 몬주익 케이블카는 중구의 케이블카 도입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 ※ 톨레도 에스컬레이터는 고지대에 위치한 톨레도 구시가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중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기존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스페인 사람들이 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과 세심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버스 시설



트램

※ 시내에서 만난 장애인 버스. 달리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여 정류장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운전기사가 직접 내려 친절하게 장애인을 버스에 태운 뒤 출발 하였다.

※ 친환경적이고 교통 정체가 없으며 아름다운 도시 미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최근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트램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중화 된지 오래며 국내에도 도입 추진 중이다.



바이싱 서비스 및 공공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 공영자전거 시스템인 바이싱 서비스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스페인 전역 (약3,25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회비 30유로를 내면 도시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교통정체와 환경 등을 세심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 스페인의 대부분의 광장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의 없다 . 그 대신 우리나라의 지하상가 같은 지하공간을 유료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차량 진출입을 위한 통로가 여러군데 존재한다고 한다 .계획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흔적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하는 것 같다 .통합된 도시계획을 한눈에 보여주는 예이다.



마드리드 산 미구엘시장



람블라스 거리

- ※ 스페인의 3대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화 과정을 통하여 시장 내부외부가 우리 나라 재래시장과 달리 일반 마트처럼 깨끗하다. 또한 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만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서 식사와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 보행자전용 도로로 많은 관광객과 예술가들이 넘쳐나는 거리로 바르셀로나 포트벨 항구와 람블라스 거리와의 거리가 걸어서 5분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을 통해 유치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람블라스 거리로 접근하여 관광활성화가 되고 있다. 내항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항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구는 비슷한 여건을 가져 내항 재개발시 벤치마킹에 참고할 만하다.



일방통행 도로 1



일방통행 도로 2

- ※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스페인 또한 일방통행 도로가 많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통하여 교통의 통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가져야할 보행 공간확보가 시민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인식때문이라고 한다.

VI

기타 지역 방문



프라도 미술관(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마드리드)

- ※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며, 회화관으로는 세계 최대의 미술관이다. 마드리드 문화관광의 최고 명소이기도 하다. 비야누에바에 의해 1819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된 미술관으로 소장품은 약 6,000점으로 전시되는 것은 3,000점에 이른다.
- ※ 마드리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푸에르타 델 솔 (Puerta del sol)은 태양의 문이라는 뜻으로 옛날에는 요새로 쓰였다. 스페인의 모든 도로가 이곳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10개의 도로가 집중되는 광장이다. 20세기 초에 그란비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쇼핑의 중심지로 유서 깊은 상점들이 많다.



톨레도 대성당(톨레도)



성 가족 성당(바르셀로나)

- ※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이다.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건물은 프랑스의 고딕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6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493년에 완공되었으며, 길이 113m 폭 57m 중앙의 높이가 45m로 내부는 22곳에 달하는 예배당과 신약 성경과 성도를 주제로 한 스테인드글라스, 보물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1891년부터 안토니오 가우디가 건축에 참가하였다. 가우디 사후인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완의 교회로 현재 완성된 부분은 착공을 시작한지 100년만인

1982년에 완성된 것이다. 가우디의 성가족 교회의 완성은 앞으로 100-2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몬세라트(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바르셀로나)

- ※ 바르셀로나 근교여행 1순위로 가우디가 성가족 성당을 구상하는데 영감을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몬세라트 수도원중 바실리카 대성당에서는 세계 3대 합창단을 만날 수 있으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검은 성모마리아상이 있다.
- ※ 피카소 미술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관한 곳으로, 중세 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보른지구의 한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피카소가 유년 시절부터 그렸던 낙서부터 스케치와 밑그림을 포함한 회화, 판화, 드로잉이 약3,000여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각 작품과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구엘공원(바르셀로나)



카사밀라(바르셀로나)

- ※ 성 가족 성당과 함께 가우디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구엘 공원은 마치 동화 속이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알록달록한 타일 조각으로 옷을 입은 도마뱀 분수와 그리스 신전을 모티브로 삼은 시장이 있다. 곡선의미를 추구하는 가우디의 철학이 잘 적용되어 있는 공원이다.
- ※ 카사밀라는 ‘채석장’이라는 뜻으로, 그의 가장 큰 주거 프로젝트이자 지금까지 세워진 건축물 중에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건물 중 하나이며,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간주되는 그런 작품이다. 전통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그

형태의 영감을 얻은 조각적인 건축과 색색깔의 모자이크와 타일을 사용하였다.



캄프 누 경기장 내부(바르셀로나)



캄프 누 경기장 외부(바르셀로나)

※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 FC바르셀로나의 홈경기장으로 바르셀로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방문하는 곳이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캄프누 체험'이라는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중석은 물론 선수들이 대기하는 벤치, 중계석, 기자회견장, 구단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경기 입장료 외에 관광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VII

방문후기

【임관만 의장】

- 인천 내항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부흥을 이끈 바르셀로나 항구를 찾고 앞으로의 내항 재개발시 참고하고자 관심있게 둘러 보았다. 바르셀로나 항구를 시찰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탄성을 토해냈다. 항 주위의 아름다운 바다를 비롯한 광장, 아름다운 건축물, 수많은 요트, 대형 크루즈 등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항구보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점은 항구와 도시 중심부가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다. 우리 인천 내항 가까이에 월미도, 신포시장,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있어 크루즈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구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항구의 성공사례가 앞으로 내항 재개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이번 비교시찰을 위해 스페인을 돌아보며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톨레도 지역의 경우 모든 건축물이 문화유산이기에 함부로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그들의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그들의 관광 사업은 지금처럼 번창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관광수입은 30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그들이 문화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중구는 1883년 개항하여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지구와 같이 소중하게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 많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아름답게 가꾸어 아름다운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관광수입도 늘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될 것이다.

【김규찬 의원】

- 스페인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 인천내항 재개발은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 중구의회가 스페인으로 산업시찰을 가게 된 주 목적은 인천 중구내항의 재개발 모델을 찾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스페인 빌바오 항과 바르셀로나 항의 과거와

현재는 인천내항의 재개발 모델로는 적합 하지는 않지만, 참고는 할만하다.

- 먼저 빌바오항은 100여년전 내륙의 강가 작은 항구에서 해변으로 이전 한 경우인데 인천내항의 재개발 모델과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빌바오 현재의 항만은 인천내항이 추구하고자하는 친수항만으로서 이미 100여년전에 계획단계에서 추진 된 것이다. 항만 한쪽에는 부두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을이 위치하여 친수적 여건을 갖추었다.
- 다음으로 바르셀로나 항도 재개발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친 시민적 항만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르셀로나항은 항만 일부를 개방하여 유람선이 다니고, 일부 면에 데크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항만 허공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항만 보안을 위해 철저히 폐쇄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내항과는 비교된다.
- 스페인 빌바오항과 바르셀로나 항을 참조하여 인천내항을 재개발한다면 8부두, 1부두, 2부두는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하여금 미술관을 설계 건축하게 하는 것이다. 3부두, 4부두, 5부두는 인천시청과 관련 공공시설을 건축하되, 인천시청 건물 자체가 작품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만 하도록 건축한다.
- 빌바오시나 바르셀로나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데, 관광지가 되려면 도시전체가 관광 명소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천은 관광 포인트가 없어서 유명 관광지로 발돋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르셀로나 만 하더라도 도시 곳곳에 관광 명소가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일부러 인천에 와서 관광 할 만한 것이 있는가?
- 이번 스페인 산업시찰을 통하여 항만재개발을 시찰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 만한 10대 도시'에 속하는 것일까. 삶의 질이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살고 싶어하고 어떤 곳에 사는 것을 싫어 하는 것일까. 시 정부가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 매일경제신문사 최은수 기자가 쓴 책, 『명품도시의 탄생』에 의하면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머서는 삶의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10대 항목에서 39개의 요소를

- 측정지표로 사용한다고 한다. 10대 항목은 소비재, 경제환경, 주거, 의료·보건, 자연환경, 공공서비스와 교통, 여가시설, 학교와 교육, 사회·문화 환경 등이다.
- 39가지의 주요 측정요소는 정치안정, 범죄, 법집행, 환율규제, 은행서비스, 인구, 개인의 자유도, 의료서비스, 전염병, 하수, 폐기물처리, 공기오염, 국제학교수준, 전기, 물, 대중교통, 교통혼잡, 식당, 극장, 영화, 스포츠, 레저시설, 차량, 음식, 주택, 가전제품, 가구, 보수서비스, 자연재해 등이 주요 측정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들의 측정 요소를 종합해보면 결국 풍요(기업하기 좋은도시 및 좋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 융화(더불어 사는 도시), 품격(품격 있는 도시) 3박자를 얼마나 잘 구현 하고 있는냐로 요약된다.
 - 스페인은 일단 공기가 좋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고, 거리는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세계3대 관광 도시로서 풍요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8년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를 보면, 스위스 취리히가 1위이고 가장 나쁜 도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였다. 서울이 86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인천이나 중구는 삶의 질이 어떤 도시인지 가늠 할 만 하다.
 - 향후 인천광역시나 중구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데 인천내항 재개발의 방향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내항에는 석탄부두가 아직 존치하고 있고, 벌크화물을 실은 대형화물차가 도로를 질주하여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인천내항 재개발도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를 인천내항 재개발의 목표로 삼아야 인천내항 재개발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

【이정재 의원】

- 이번 스페인 항만비교시찰을 통하여 인천항이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하는 것이 좋을지 그 곳 항만 관계자와 현장을 직접보고 발전과정을 설명 들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빌바오항과 바르셀로나항 두 곳을 방문하였으나 빌바오항은 인천내항과는 발전과정이나 지향하는 바가 틀려서 설명을 생략하며 바르셀로나항의 상황을 우리 내항과 비교하였다.
- 첫째로 바르셀로나 항만 지구에는 항구와 몬주익 언덕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도시와 항구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그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다. 항만과 산 위를 오가는 상황이 바로

우리 중구 자유공원, 월미도 그리고 내항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케이블카 설치의 예와도 매우 흡사하다. 자유공원, 월미도 그리고 내항을 잇는 케이블이 연결되고, 내항재개발로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마련된다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다보는 서해 앞바다와 내항의 전망 그리고 인천항만의 특색인 갑문을 관찰할 수 있다면 결코 세계적인 관광지인 바르셀로나 항의 전망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천항의 케이블카 길이는 너무 짧아서 영종도의 구읍배터까지 연장해 설치한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거라 생각이 든다.

- 둘째로 항만에 정박해있는 요트들이 참 많았다. 이곳 바르셀로나항의 요트들은 중동의 부호들의 대형 요트부터 일반인들의 요트까지 매우 다양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역설하듯이 요트산업은 부가가치가 대단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트 정박료, 보관료, 지속적인 수리와 정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실내 인테리어까지.. 우리 중구는 과거부터 선박 수리와 유지보수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곳이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 셋째로 바르셀로나 포트 벨 항구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중 하나다. 과거 어항이었던 항구가 도시의 발전과 물동량의 증가, 재개발을 통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아름다운 바다, 조화로운 건축물, 대형 쇼핑몰이 있어 항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바르셀로나 포트 벨 항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내항도 현재는 산업항의 모습만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중구 구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동안은 상업항으로 인하여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만 봤지만 이곳 바르셀로나항처럼 항구의 물동량을 대형 화물차가 아닌 철도를 이용하여 수송함으로 항만인근의 대형트럭 질주를 억제함으로 친수공간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휴식을 취하고 관광객들은 증가하며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해 본다.

【한성수 의원】

- 해외선진항만시설 및 도시재생사업 비교시찰에 따라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일대를 둘러 보았다. 먼저 우리 내항이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조언을 얻고자 빌바오 항만청과 바르셀로나 항을 찾았고, 대화와 그간 진행상황을 통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80년대 유희화된 항만지역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 시, 지자체, 시민, 그 밖에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인의 사사로움이나 이익관계보다는 공생하고 발전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계획 하에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유럽 최고의 항이 된 바르셀로나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아쉬움도 컸다 우리 중구의 내향도 앞으로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르셀로나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기억에 남는 것을 한가지 더 꼽자면 스페인의 교육 인프라와 역사, 문화의식이다.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 왕궁, 프라도 미술관, 마요르 광장, 피카소 미술관 등 여러 문화시설 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곳을 우리의 그것과 비교하며 시찰해보니 놀라운 것은 이 건물들이 지어진 시기가 유구함에도 원형에 대한 훼손 없이 잘 유지보존 되면서도 현대식 시설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와 보호가 잘되어있다는 점이다. 마드리드 왕궁의 지어진 시기는 9C, 프라도 미술관은 19C에 지어졌다. 지어진지 1,000년이 지난 건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점, 현대에 지어진 건축물만큼 튼튼하여 현재도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자재나 건축양식을 기존의 역사공간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계획적으로 조성된다는 점에 그 문화재나 역사적 건축물을 단순히 오래된 구식품으로 치부하고 새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현실, 혹은 거꾸로 제대로 된 고증없이 모방하여 짝퉁 복원에 만족하는 우리네 모습과 비교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늘 강조하듯 역사적 자산을 살려 문화적 가치를 키워야하는데 스페인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었다. 우리 중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항구도시로 근대 개항기의 유물과 건축물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 지금부터라도 무계획적인 난개발 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살리면서 중구의 현실과 특색에 맞게 개발하길 기대해 본다.
- 또한 피카소 미술관이나 프라도 미술관에서 어린 학생들이 일상처럼 손쉽게 미술관을 체험하며 단순 작품 자체 뿐 아니라 그 작품의 역사적 배경, 작가에 대한 이해, 당시의 인문학에 대한 토론에 의견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에서 입시위주의 성적중시 교육이 아닌 한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면 성장하는 그 교육, 문화적 인프라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유리장속 박물관이나 재산가치용 난해한 미술작품 진열관이 아닌 생활속 문화 교육과 인문학교육에 좀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별첨1] 관련 사진



빌바오 항만청 공식방문



빌바오 항구 시찰



마드리드 벤타스 투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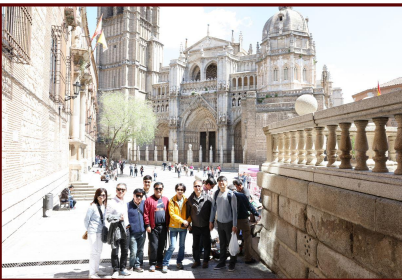
톨레도 전경



톨레도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 내부



톨레도 대성당 외부



구겐하임 미술관 외부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



마드리드 공원



바르셀로나 항구 현지 설명 청취



바르셀로나 항구 시설 시찰

[별첨2] 바르셀로나 항만청 현지 보도자료

La ciudad coreana de Incheon se interesa por el modelo de integración puerto-ciudad de Barcelona



*Delegación del distrito de Jung-gu de Incheon
con el commercial manager del puerto de Barcelona, Lluís París*

Una delegación del distrito de Jung-gu, de la ciudad portuaria de Incheon, en Corea del Sur, encabezada por su presidente, Kwan-man Lim, se reunió con el commercial manager del puerto de Barcelona, Lluís París, para conocer la experiencia de Barcelona en el proceso de integración puerto-ciudad. Incheon es la ciudad donde se encuentra el puerto que da servicio a Seoul, en el Norte del

país, desde donde se exportan las piezas del Opel Mokka que llegan a Barcelona.

Además de interesarse por el modelo de centro comercial y lúdico del Maremagnum, la delegación surcoreana quiso conocer el modelo de segregación de tráfico por terminal y la estricta ordenación de actividades que aplica el puerto de Barcelona. Los directivos de Incheon también

informaron sobre el ámbito de los cruceros, especialmente en cuanto a la capacidad de coordinación de las infraestructuras y las operaciones que permiten atender el importante volumen de cruceros y pasajeros que llegan a la ciudad anualmente. Las iniciativas medioambientales impulsadas por el puerto de Barcelona también estuvieron muy presentes en todo el encuentro.

[기사번역]인천, 바르셀로나 항구 도시 통합 모델에 관심을 보인다.

사진 아래) 바르셀로나 항구의 상업관리자 루이스 파리스와 인천 중구의회 방문단 3단

대한민국의 항구도시인 인천 중구의회 임관만 의장 외 방문단은 항구 도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바르셀로나 항만공사(APB)의 상업 관리자 루이스 파리스와 만남을 가졌다. 인천은 바르셀로나에 오펔모카(자동차 명) 부품을 수출하는 북부연안항구를 가진 도시이다.

그들은 쇼핑 센터와 새만금 카지노 모델 외에도 터미널에 의해 교통량을 분리하는 일이나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했다. 또한 그들은 크루즈의 범위 특히 매년 도시에 오는 크루저 및 승객들을 받기 위한 인프라와 그 운영 능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 정책 회의에 참여했다.